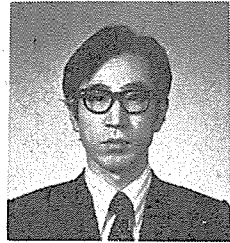


제3차 한국장내기생충 감염 현황조사 에 대하여



조 승 열

우리나라 국민에 있어서 기생충 감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높은 기생충 감염률 때문에 우리국민의 건강저해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를 기생충 왕국이라는 나쁜 표현으로 불러도 이를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없을 만큼 사실상 기생충감염은 창궐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생충이 널리 유행하게 된 원인이라 많겠지만 여하튼 기생충 감염률이 높다고 한탄할 수 만은 없고, 그냥 방치할 수만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줄여 보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기생충 감염의 관리는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기생충 관리 체제가 설립되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 기생충 관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당면한 문제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즉 높다고 하는 기생충 감염이 모든 국민의 수준에서 정말 얼마만큼이나 높은 것이냐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겠다는 것이고 어느 지역이 더 높

고 어느 나이에 더 많고 어떤 기생충은 왜 어떤지역에서 더 유행하고, 등등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또는 나빠지는 것인지 어디에 더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 등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야말로 기생충 관리에 있어 그 기본이 되는 표본자료를 마련하여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몇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전 국민의 기생충 검사를 일시에 모두 실시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그중 일부만을 검사해서 전 국민이 이만큼 감염되어있소라고 말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그 일부를 얼마나 어떻게 뽑아서 검사하느냐는 큰 문제가 생긴다. 또 기생충 감염은 시간에 따라 그 상태가 바뀌는 것이므로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고 전국적인 검사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이것은 기생충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 기생충학 전문가, 기생충 관리의 실무자 등이 모여 토의한 결과 국민 1,000명중 하나를 뽑은 전국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인구비율, 성별, 나이, 섬과 내륙지방, 수입, 주거형태 등등 여러가지가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의 통계 전문가가 뽑은 사람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였고 검사는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원칙이 정하여지게 된 것이다.

제 3차 한국 장내 기생충 감염 현황 조사는 1981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 되었다.

여기에는 국고 21,137,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37,380,000원의 많은 예산이 들었고 보사부 만성병과 경제기획원 통계국 관리와 대한기생충학회의 기생충 전문가 및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임직원이 모여 토의 결정된 사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도시 61개 조사구 및 농촌 43개 조사 등 모두 104개 조사구의 인구 35,018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는 대변검사와 항문도말법을 실시 하였다.

이번 제 3차 조사 결과로 나타난 바를 요약하면 과거 제 1차 조사(1971), 제 2차 조사(1976)의 결과보다 기생충 감염은 매우 낮아진 기생충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행하였던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동양모양선충 등 소위 흙을 매개하여 전파되는 기생충이었다. 구체적으로 회충은 총란 양성률이 13.0%로서 1971년의 54.9%, 1976년의 41.0%에 비하여격감하였고 특히 대량 감염자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었다. 십이지장충 총란 양성률은 0.47%로서 10.7%(1971), 2.2%(1976)에 이어 계속 저하하고 있고

편충은 23.4%로서 65.4%(1971), 42.0%(1976)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고 동양모양선충의 총란 양성률은 0.22%이었다.

이에 비하여 간흡충, 요꼬가와흡충, 유무구조충과 왜소조충 등은 과거에 비하여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번 제 3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요충 총란 양성률은 12.0%로서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 높은 총란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이번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아직도 회충 등 흡을 매개로 전파되는 기생충이 아직도 높은 상태이다.

과거 10여년간 기생충 감염을 저하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업화 대도시 인구집중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 농업기술의 혁신 등이 특히 흡을 매개로 하여 전파되는 기

생충 감염을 10년전 보다 격세지감이 있도록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13.0%, 즉 약 450만명이나 아직도 회충에 감염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약 1,440만명의 인구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생충 감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분포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웃 일본의 최근 자료에서 회충 감염자가 전 인구의 0.1% 정도라고 하는 것을 타산치적으로 삼아야 하겠고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관리의 결과 과거보다 나은 상태를 만들었으나 앞으로의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흡이 매개하여 전파하는 회충 등의 기생충 감염을 힘써 관리하여야 하겠고 과거 10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간흡충이나 유무구조충, 어린이에게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요충 등의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들 기생충 감염에 대하여는 치료제가 관리 방법의 개선책들이 기생충학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생충 왕국에서 기생충 없는 나라로 탈바꿈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 교수·의박〉

